

경관경험의 향상을 위한 문화·역사 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

- 경주시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이영경 · *민창기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Landscape planning and conservation for cultural-historical places to improve landscape experience - focused on Kyoung Ju city -

Yi, Young-Kyoung · *Min, Chang-G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Master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Cultural-historical places, due to their strong symbolic sense of place shared in various people, have important impacts on people's (both insiders and outsider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Especially,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areas of cultural-historical places directly influence the way the places are perceived, because they function as a visual background of the plac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landscape of cultural-historical places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the places.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was manipulated by a computer simulation in the two aspects; quality and scale. The quality of the simulated landscape was divided by two kinds: natural (woods) and artificial (apartment complex). The scale of the simulated landscape was classified by three kinds: 1/3 of the middle ground, 2/3, and 3/3. Specifically, in each photo simulation, simulated natural or artificial background was introduced up to 1/3, 2/3 or the full height of historic monument. After a computer simulation, people's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the simulated slide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surrounding landscape have a great

impact on all the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investigated. On the contrary, the scale of surrounding landscape was found to have an impact on partial reactions, such as all the emotions, part of the cognitions (historical value and traditional value), and visiting preference on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landscap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rucial elements in planning of cultural-historical pla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landscape planning and conservation for cultural-historical places and historic cities.

I. 서론

물리적 환경의 시각적 특질인 경관은 장소성(place identity or sense of place)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형성하는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Laumann & House, 1972; Rapoport, 1982a), 사람들의 정체성(self-identity)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장소성은 물리적 경관에 대한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물리적 경관이란 사람들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성이 교차하는 삶의 장소로서(Stokols, 1990),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강한 의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Relph, 1976). 즉, 물리적 경관은 지역의 문화와 가치, 도덕등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실체로서, 행동과 생각의 무대이며, 사람들의 주체의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은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며(Sime, 1986), 문화역사공간은 도시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강한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문화역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사한 경관과 활동 및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민에게는 소속감과 주체의식을 유발시키며 외부인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매력으로 인식되어 진다(Eliade, 1959; Eck, 1982; Rapoport, 1982b).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가 혼재하는 도심지에 있어서 오랜 기간동

안 구축된 장소성을 유지하는 문화역사지역은 지역주민의 사회·심리적인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도시의 이미지와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이, 1996).

구체적으로 문화역사지역은 문화의 주체성을 상징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는 휴식과 사색, 교육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외부인에게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관광지역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면 문화역사지역의 보존과 관리는 해당 문화유적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장소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특질인 경관, 활동, 그리고 경험이 변화하지 말아야 한다(Tuan, 1974). 장소성의 기본 요소인 경관, 활동,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으로, 장소의 시각적 특질인 경관에 이미 그곳에 합당한 활동과 활동으로 인한 경험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역사지역의 경관관리와 계획은 문화역사지역의 장소성과 가치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역사지역의 계획과 관리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도시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문화역사지역은 개별적인 문화재나 유적이 점유한 공간과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면적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주변지역이나 배후지역에 현대식 건물이 무질서하게 건설되고 있으며 경관적 괴리감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문화역사지역에 내재된 본래의 장소성의 재창출이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없고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역사지역의 가치는 이미 대두되고 있는 문화관광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문화관광은 전통적인 사회가치로의 복귀를 통하여 자신의 주체와 존재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Richards, 1996). 문화관광이 확산되어 가는 것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자연파괴와 환경공해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반성과 자아완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Nuryanti, 1996), 이러한 욕구와 필요성은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는 독특한 문화체험과 인간성회복을 가능케 하는 역사문화지역에 대한 관광이 관광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주와 같이 도시전반에 유적과 유물이 산재되어 있는 역사 도시는 문화관광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통성(authenticity), 정체성(self-identity), 과거와의 만남(encounters with past)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역사지역의 장소성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장소성은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문화와 역사, 전통등의 장소성과 가장 부합하는 경관 특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천년고도이며 문화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큰 경주의 문화역사지역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택하여 경관의 변화가 사람들의 제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에 소재한 문화역사지역의 경관변화가 사람들의 인식적,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문화역사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computer simulation을 통하여 문화역사요소 주변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며, 변화된 경

관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경관의 설정

경주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시민에게는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경주의 이미지가 경주에 사는 긍지로 인식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경주시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적인 문화재와 고분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알 수 있다(윤길진, 1990; 강태호와 최재영, 1992; 이규목, 1993; 조세환과 오휘영, 199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밝혀진 경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역사요소중에서 물리적 형태가 비교적 다른 첨성대와 임해전, 그리고 고분(무덤)이 연구대상요소로 설정되었으며, 고분은 단독고분과 3개이상의 고분군으로 다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된 문화역사요소는 첨성대, 임해전, 단독고분, 고분군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설정된 문화역사요소의 촬영은 자연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50mm 표준렌즈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촬영경관은 문화역사요소를 근경에 위치시키고 주변경관은 중경과 원경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대상경관의 조작

가) 경관조작의 기준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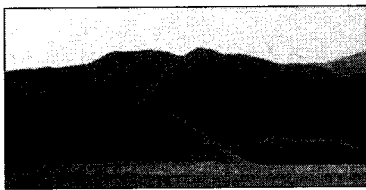
촬영된 연구대상경관의 근경에는 문화역사요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경관의 조작이 이루어진 주변경관은 중경부분이었다. 경관조작은 경관의 질과 경관의 규모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정되었다. 조작경관의 질은 자연적인 것(숲)과 인공적인 것(아파트 단지)의 2가지로 분류되었다. 조작경관의 규모 평가자들의 피곤과 싫증을 방지하는 동시에 경관규

모의 영향을 밝힐 수 있도록 3가지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관규모는 근경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역사요소의 높이를 중심으로; 1) 지면으로부터 역사요소 전체높이의 1/3 지점까지의 규모, 2) 2/3 지점까지의 규모, 3)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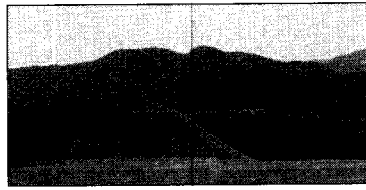
지점까지의 규모 등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경관조작은 4가지 문화역사요소 * 2가지 주변경관의 질 * 3가지 주변경관의 규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작된 경관은 총 24장이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경관조작 사진들 (2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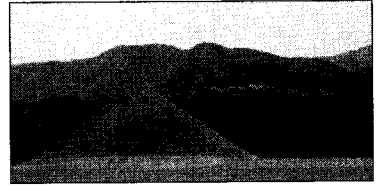
1. 단독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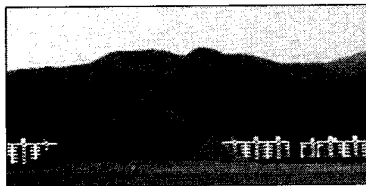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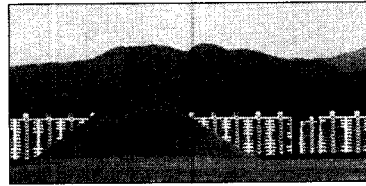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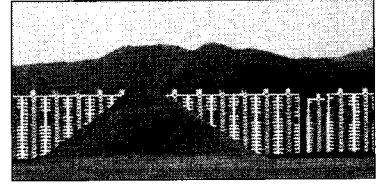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3/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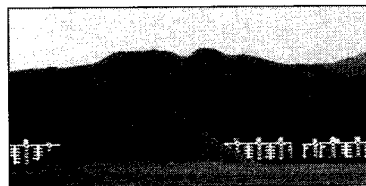


인공적 요소(아파트)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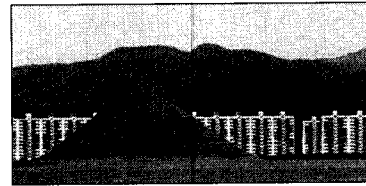


인공적 요소(아파트) 3/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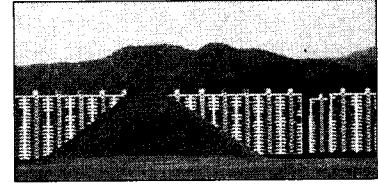
2. 군집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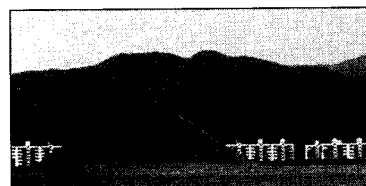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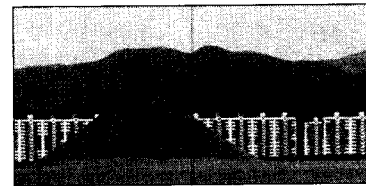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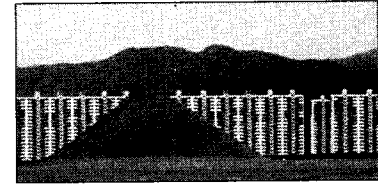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3/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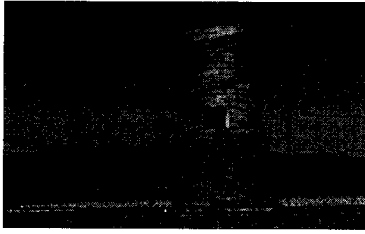


인공적 요소(아파트) 2/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3/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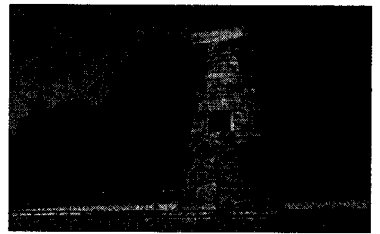
3. 침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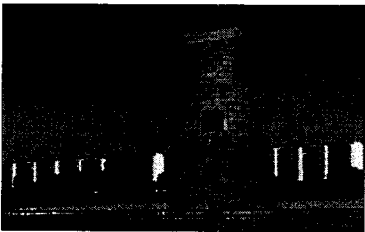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1/3규모



자연적 요소(숲)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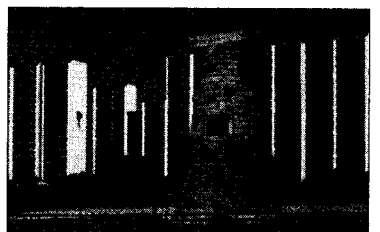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3/3규모



공적 요소(아파트)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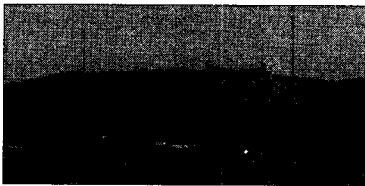


인공적 요소(아파트)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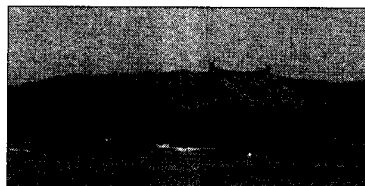


인공적 요소(아파트) 3/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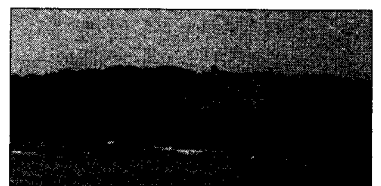
4. 임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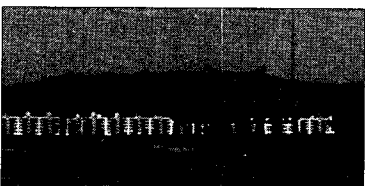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1/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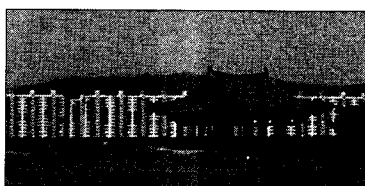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2/3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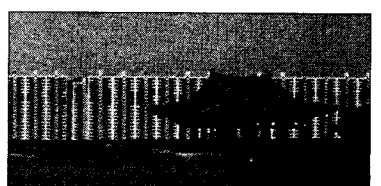
자연적 요소(숲) 3/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1/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2/3규모



인공적 요소(아파트) 3/3규모

나) 주변경관의 조작

주변경관의 조작은 다음의 3가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촬영된 슬라이드 필름을 입력 해상도 2000dpi로 하여, 가로 2600개의 점(pixel)과 세로 1800개의 점으로 구성하여 RGB 방식으로 입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adobe photoshop을 이용하여 스캐닝된 경관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경관 조작 시에는 삼입경관과 기존경관 사이의 밝기, 채도 및 색감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연구자와 조경학과의 대학원생들의 검토가 수반되었다. 마지막으로 film recorder

를 이용하여 조작된 경관들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출력하였는데, 출력시 수평해상도가 4096 pixel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의 질과 규모가 사람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가설 1: 문화역사요소 주변경관의 질적 변화는 사람들의 반응에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이 자연적일 경우에는 인공적일 경우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유발될 것이다.

가설 2: 문화역사요소 주변경관의 규모적 변화는 사람들의 반응에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이 전체경관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도 변화할 것이다.

4. 평가자집단 및 설문지 작성

가) 평가자 집단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 집단은 동국대학교 재학생 192명으로 조경전공인 95명, 비전공인 97명으로 이루어졌다.

나) 설문지 작성

기존의 경관연구결과를 보면 물리적 경관의 변화는 사람들의 인지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apoport, 1970, 1976, 1982 a; Russell & Snodgrass, 1989; Altman & Low, 1982; Cooper Marcus, 1992; 이, 1997).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는 경관변화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을 밝힐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설문문항의 채택은 기존의 연구자료에서 사용된 평가형용사중에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것과 문화역사지역의 경험에 관련이 되는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18개가 선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반응은 외부경관에 대한 평가로서, 아름다운, 조화로운, 손상된, 복잡한, 인공적인, 낯선, 마음이 끌리는, 흥미로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가진 등의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감정적 반응은 사람들이 경관을 보고 느끼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편안해지는 느낌, 차분해지는 느낌, 지루한 느낌, 실망스러운 느낌, 답답한 느낌, 행복한 느낌 등의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방문하고픈 선호도, 거주하고픈 선호도 등의 2가지 질문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설문지는 인지적 반응과 관련된 10가지, 감정적 반응과 관련된 6가지, 선호도와 관련된 2가지 등의 총 18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은 5점의 unipolar 척도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18가지 변수에 대한 인자분석이 실시되었는데, 18개 변수는 7개 인자로 분류되었다(표 1 참조). 표1을 보면 인자 1은 인식관련 변수와 감정관련 변수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에, 다른 인자는 두 가지 중 한가지 반응에 관련된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인자와 구성 변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인식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결과분석을 위해서 인자 1은 "아름다움과 만족도"로, 인자 2는 "인공적 복잡도"로, 인자 3은 "실망도"로, 인자 4는 "역사문화도"로, 인자 5는 "매력도"로, 인자 6은 "방문선호도"로, 인자 7은 "거주선호도"로 명명되었으며, 7개 인자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위의 7가지 반응을 종속변수로

다. 구체적으로, 문화역사요소의 특질(첨성대, 임해전, 단독고분, 군집고분)이나 주변경관의 규모(1/3, 2/3, 3/3)에 상관없이 주변경관이 자연적일 때 사람들은 보다 만족해 하고, 덜 실망스러워 하고, 덜 복잡하다고 느끼며, 보다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매력적이며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보다 더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사문화요소의 주변경관이 자연적일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는 첫 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2. 가설2의 검증: 주변경관의 규모가 사람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삼원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면 주변경관의 규모가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는 7가지 반응중에서 5가지 반응(아름다움과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문화도, 방문선호도)에서만 발견되었으며, 매력도와 거주선호도에는 영향이 없음이 발견되었다(표4 참조).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은 위의 5가지 반응에서만 채택되었으며, 다른 2가지 반응에서는 기각되었다.

표4를 보면 5개 인자에 대한 영향은 주효과와 교호효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역사요소의 특질과 주변경관의 질을 감안한 보다 구체적인 이원분산분석(표5)과 turkey test(표6)가 실시되었다. 이원분산분석은 문화역사요소의 특질과 주변경관의 질을 감안한 8가

표 4. 주변경관의 규모가 7가지 반응에 미치는 영향 (삼원분산분석결과)

7가지 반응	주효과 (주변경관 규모의 영향)		교호효과 (주변경관규모*주변경관의 질*문화역사요소의 특질)	
	F	p-value	F	p-value
아름다움과 만족도	11.0291	<0.0001	6.7901	<0.0001
인공적 복잡도	41.0178	<0.0001	5.4423	<0.0001
실망도	8.7101	0.0002	7.9103	<0.0001
역사문화도	12.3245	<0.0001	3.3439	0.0027
매력도	1.9598	0.1410	7.3837	<0.0001
방문선호도	3.8568	0.0212	9.0403	<0.0001
거주선호도	0.4779	0.6201	4.9282	<0.0001

지 경우에 경관의 규모가 5가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turkey test는 경관규모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실시되었는데, 각 규모별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표5의 이원분산분석결과를 보면 경관규모의 영향은 자연경관에서보다 인공경관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6의 turkey test 결과를 요약하면 자연경관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첨성대와 단독고분에 대한 경관경험은 자연적인 주변경관이 중경전체를 점유할 때 가장 긍정적인 반면에, 임해전과 군집고분에 대한 경관경험은 자연적인 주변경관이 중경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공경관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의 turkey test 결과를 보면 단독고분, 군집고분, 첨성대에 대한 반응은 인공경관의 규

표5. 문화역사요소의 특질과 주변경관의 질을 감안한 주변경관 규모의 영향(이원분산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람들의 5가지 반응)와 p-value				
문화역사요소의 특질	주변경관의 질	아름다움과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문화도	방문선호도
단독고분	인공적	0.0053	<0.0001	0.1616	0.0253	0.2299
	자연적	0.0192	0.9670	0.3647	0.4630	0.0025
군집고분	인공적	<0.0001	<0.0001	0.0007	0.0001	0.0045
	자연적	0.5096	0.0790	0.2520	0.0423	0.0212
첨성대	인공적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자연적	0.1382	<0.0001	0.2071	0.0522	0.8929
임해전	인공적	0.0068	0.0006	<0.0001	0.0126	<0.0001
	자연적	0.0002	0.0408	0.0179	0.0350	0.0006

표6. turkey test 분석결과

문화역사 요소	규모	자연경관일 경우					인공경관일 경우				
		아름다움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 문화도	방문 선호도	아름다움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 문화도	방문 선호도
단독고분	1/3	3.2031	.	.	.	2.9109	1.9812	3.5392	.	2.0546	.
	2/3	3.3927	.	.	.	3.0468	1.8659	3.8795	.	1.9502	.
	3/3	3.4397	.	.	.	3.3072	1.7416	4.0104	.	1.8151	.
군집고분	1/3	3.1458	2.4083	3.3437	3.3181	2.3828	2.3020
	2/3	2.8182	2.2208	3.5937	3.4913	2.1432	2.1458
	3/3	3.0733	1.9052	3.8784	3.7118	1.9895	1.9472
첨성대	1/3	.	1.8055	.	.	.	2.0759	3.2847	3.1849	2.5000	2.3385
	2/3	.	1.7452	.	.	.	1.8869	3.9005	3.7561	2.0471	1.9842
	3/3	.	2.1406	.	.	.	1.5148	4.2881	3.9010	1.7786	1.7864
임해전	1/3	3.8791	.	1.9392	.	3.7500	2.1802	3.6093	3.4375	2.2317	2.2708
	2/3	4.1052	.	1.7986	.	4.0789	1.9520	3.9075	3.7881	2.1067	1.9635
	3/3	3.8291	.	2.0280	.	3.7031	2.1895	3.5637	3.2465	2.4010	2.5468

*turkey test는 표5에서 p-value가 0.03이하인 경우에만 실시되었음.

모가 커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임해전의 경우에는 인공경관의 규모가 2/3일 때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주변경관규모가 사람들의 반응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의 경관경험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경관규모의 영향은 경관의 질과 깊이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주거환경의 쾌적함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박과 이(1997)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비록 연구가설은 기각되었지만 주변경관의 규모가 사람들의 경관경험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관규모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7가지 반응중 아름다움과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문화도, 방문선호도 등의 5가지 반응에서만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경관규모의 영향은 주변경관의 질과 문화역사요소의 특질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단독고분과 첨성대의 경우에는 자연경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군집고분과 임해전의 경우에는 자연요소의 규모가 2/3일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공경관일 경우에 경관규모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임해전을 제외한 단독고분, 첨성대, 군집고분의 경우에는 인공경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나, 임해전의 경우에는 인공경관의 규모가 2/3일 때 가장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역사요소의 특질때

IV. 결과고찰 및 결론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의 질과 규모가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람들은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이 인공적일 때 보다 자연적일 경우에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반응은 아름다움과 만족도, 인공적 복잡도, 실망도, 역사문화도, 매력도, 방문선호도, 거주선호도 등 7가지 반응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김외 다수(1993)에 의한 연구에서는 자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성이 높아짐을 발견한 바 있으며, 황(1997)은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역사문화지역의 경관경험은 역사문화요소의 배경이 되는 주변경관의 특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역사문화지역의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주변경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역사문화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역사문화지역이나 역사도시의 경관계획은 자연적인 경관유지를 가장 중요한 계획개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적지와 문화역사요소의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의 인공경관요소를 차폐시킴으로써 문화역사요소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긍정적인 경관경험을 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관계획은 문화역사요소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역사문화요소 주변의 자연적인 완충지역설정은 해당 역사문화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경관규모가 경관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문화역사요소의 특질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역사지역의 경관계획 수립시에는 기존 문화역사요소의 물리적 형태와 특질을 고려한 세부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역사도시에 있어서, 특히 경주와 같이 유적과 문화재가 도시 전반에 소재하는 도시에 있어서는 문화재와 유적에 대한 가치보존이 21세기에 도래할 문화관광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문화역사요소의 주변경관이 자연적일 경우에 문화역사요소가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고, 그 경관이 더욱 아름답게 평가되며,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지역에 방문하거나 살고 싶어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문화역사요소 자체에 대한 보존관리와 더불어 주변경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경관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역사요소 주변에

대한 무분별한 인공적 건설이나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 기능등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나, 국토전반의 균형적인 개발과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그리고 문화관광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기초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적용, 고도도시 특별법 제정에 의한 고도도시 경관계획과 관리체계의 마련, 지역개발에 대한 지자체 권한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태호, 최재영 (1992). 고도시 주민의 도시개발규제에 대한 인식도조사, 경주발전, 창간호, pp. 80-95.
- 김광래, 허준, 노재현 (1993). 녹지공간의 자연성과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0, No. 4, pp 90-105.
- 박찬용, 이영대 (1997). 도시경관평가에 있어서 녹지의 역할과 계획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Vol. 23, No 1, pp 39-50.
- 윤길진 (1990). 국립공원 관광지에 대한 인지와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규목 (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0, No. 4, pp. 39-53.
- 이영경 (1996). 문화역사공간의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방안, 환경정책, 4권 2호, pp 123-132.
- 이영경 (1997). 경관의 의미와 경관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4, No. 4, pp. 59-73.
- 조세환, 오희영 (1993).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가치도분석: 경주시 사례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 21, No. 2, pp. 34-49.
- 황기원 (1993). 도시경관과 도시계획, 한국조경학회지, Vol 21, No. 3, pp 117-121.
- Altman, I. & Low, S. M. (Ed.) (1982). *Place Attachment*. New York, NY:Plenum.
- Cooper Marcus, C. (1992). Environmental memories.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New York, NY: Plenum, pp. 87-112.
- Eck, D. (1982). *Banara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liade, M.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Chicago, IL: Harcourt Brace

- and World.
- Laumann E. O., & House, J. S. (1973). Living room styles and social attributes: The patterning of material artifacts in a modern community. In H. H. Kassarian & T. Robertson (Eds.), *Perspectives in consumer behavior*. Glenview, IL: Scott, Foresman.
- Nuryanti, Wienu. (1996). Heritage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 2, pp.249-260.
- Rapoport, A. (1970). Symbolism and environmental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gy*, 1(3), 1-9.
- Rapoport, A. (1976). *The Mutual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 The Hague, Holland: Mouton Publishers.
- Rapoport, A. (1982a).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A Non-verbal Communication Approach*. Beverly Hills, CA: Sage.
- Rapoport, A. (1982b). Sacred places, sacred occasions and sacred environments. *Architectural Design*, 9(10), 75-82.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ichards, Greg. (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3, No. 2, pp.261-283.
- Russell, J.A. & Snodgrass, J. (1987). Emotion and Environment.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II, 245-279.
- Sime, Jonathan D. (1986). *Creating Places or Designing Spaces?*. School of Architecture, King Henry Building Portsmouth Polytechnic, Portsmouth, Hants PO1 2DY, U.K.
- Stokols, D. (1990). Instrumental and spiritual views of people-environment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45(May), 641-646.
- Tuan, Y. F.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